

## 曙宇 崔載喜 博士의 人品과 哲學

曙宇先生은 1914년 8월 경북 淸道 땅에서 慶州 崔氏 諱 恒默의 長男으로 탄생하였다.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儒敎의 엄한 가정교육을 받은 先生은 大邱 高等普通學校를 졸업하고, 이어 京城帝大 豫科 文科에 입학하였다. 高普시절에는 故 朴鍾鴻, 李揆東 두 恩師로부터 民族意識을 지니는데 깊은 감화를 받으셨다. 엄한 가정교육과 굳은 民族意識을 바탕으로 성장하신 曙宇先生께서는 豫科 2년 동안에 앞으로 이 거례를 위하여 자신이 나아갈 길을 스스로 택하여 大學의 哲學科에 입학하였다. 대학 哲學科에 입학한지 3년만에 「Sokrates에 있어서의 善의 規定」이라는 論文으로 大學을 졸업하셨으나, 어딘지 그것에만 만족한 수 없어서 이어 哲學科 助手로 2,3년 동안 일하시면서 研究를 더 계속하셨다.

“세상의 韃에(毀譽) 포핍(褒貶) 크고 작은 파도들이,

뱃전에 날아들어 흐트러지든 마든,

담대히 그 노를 잡아 인생 바다 저으리.”(「生の 落穂」 중에서)

이 時調는 언제나 우리 人生에게 되풀이되는 懷疑의 掩襲을 굳은 意志로써 굳세게 물리치는 先生의 생활태도를 象徴적으로 읊으신, 先生의 自作 時調이다. 哲學에의 先生의 굳은 一念은 무엇을 알 것인가에 있기 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있었다. 아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을 行하기 위하여 아는 것이요, 무엇을 行하기 위해서는 行爲의 指標가 서 있어야 한다. 行爲없는 앎이란 空虛하고, 指標없는 行爲란 盲目이다. 그러기에 선생은 學士자격 論文에서도 「善」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28歲 때 開城 龐(방)씨 淑子 女史와 婚禮式을 올린 先生은 현재 슬하에 一女二男을 두셨다. 婿郎 郭秀一 博士는 서울大 경영학 부교수요, 長男 完鎭씨는 國際經濟研究院에, 次男 英鎭씨는 三星電子會社에 각각 근무하고 있다. 曙宇 先生은 外面에 있어서는 매우 엄하시지만, 內面的으로는 실은 매우 관대하시고 애정이 넓쳐 흐른다. 弟子들이나 子女들에게 대한 先生의 가르침은 한결같이 엄하시면서 仁慈하시다. 先考丈을 섬기시는 先生의 孝心은 감히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至極하시다. 이러한 德行은 엄하시면서도 仁慈하셨던 先考丈의 가정교육에서 유래한 것 같다. 그 어느 正初에 여러 弟子들이 先生宅에 歲拜하러 간 일이 있었다. 우리는 먼저 先考丈에게 歲拜를 드리고 다음에 先生에게 歲拜를 올렸다. 우리 보다 조금 뒤늦게 先考丈의 親舊되시는 어른들께서 오셨다. 바로 그때 先考丈께서는 벌써 華甲을 넘기신 先生에게 안경을 벗고 歲拜하도록 엄하고도 부드럽게 가르치셨다. 우리는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아 몸둘 바를 몰랐다.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던 일이 이제도 생각난다. 내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으나, 선생의 지극한 孝心은

이러한 先考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닐까?

1960년에 曙宇 先生은 韓國휴머니스트會를 創立하셔서, 初代 會長으로 계시면서 「휴머니스트」會誌를 發刊하여, 이 나라의 휴머니즘 精神의 普及運動에 앞장서 오셨다. 또 先生께서는 韓國哲學會 회장으로서 계시면서 1957년 이후 제 2집으로 刊行이 중단되었던 學會誌 「哲學」의 제 3집을 1969년에 다시 發刊함으로써 그 후 지금까지의 續刊의 기들을 잡아 놓으셨다. 뿐만 아니라, 1972년에 先生은 「서울大學校 哲學會」를 조직하여 「哲學論究」를 創刊하셨고, 올 해까지 제 7집이 나와 있다. 이와 같이 先生은 꼭 필요한 것, 꼭 해야 할 일은 하고마는 人品이다. 이런 인품은 선생의 鐵石같은 굳은 意志와 뜨거운 情熱과 젊은 이조차도 무색하게 하는 精力등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先生이 벌써 停年 退任 이시라니!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다.

曙宇先生의 哲學에 관하여 논한다는 것은 先生의 人品을 논하는 것에 못지 않게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先生의 哲學에의 一念의 結晶인 著書, 譯書, 論文, 評論, 隨想 등을 주의 깊게 분류해 보면, 그때 그때 선생의 관심이 어느 곳에 있었으며, 무엇을 문제삼으려고 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감히 先生의 철학을 논해 볼 용기를 얻었다. 「Sokrates에 있어서의 善의 規定」이 실마리가 된 先生의 研究활동은 1940년부터라고 생각된다. 50年代까지의 연구내용은 주로 哲學의 基本的인 入門書와 倫理學에 관한 論文들 및 칸트의 實踐理性批判의 번역이었다. 60年代의 선생의 關心分野는 社會哲學과 歷史哲學이며, 해방 전 助手시절부터 기울여 오신 Hegel에 대한 끈덕진 執念은 65년에 「Hegel의 法哲學 綱要 批判」이라는 哲學博士 學位論文으로써 결실을 보게 되었다.

70년에 들어서면서 선생의 研究활동은 더욱 더 왕성하였다. 70年代 初半期에 선생의 注力은 그동안 줄곧 心血을 쏟아오신 西洋 倫理思想史의 총정리와, Kant의 「純粹理性批判」의 번역에 있었다. 이 방대한 Kant의 代表著의 嚆矢的인 번역은 그 누구의 번역에도 못지 않은 秀作 중의 秀作이다. 曙宇先生에게 大韓民國 學術院의 功勞賞이 주어진 것도 이러한 業績에 대한 評價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0年代 後半期에 先生은 Max Scheler의 철학적 人間學과 價值倫理學을 연구하셨고, 이 동안에도 Kant가 엄두에서 떠날 수 없어서 Schopenhauer와 Heidegger의 哲學立場을 통해서 Kant철학을 再吟味하셨고, 近者에는 韓國 思想史・한국문명사에 관심이 集中한 나머지, 특히 그 倫理思想 側面의 現代的 照明을 試圖하셨다.

曙宇 先生의 關心分野는 실로 광범하다. 선생은 學生, 大學, 文明, 語文, 社會, 歷史 등 多方面에 걸쳐 흥미로운 評論까지 쓰시고 계시다. 특히 先生의 華甲宴 때 來賓에게 贈呈하신 선생의 「生の 落穂」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에서 부터 哲學에 이르기까지의 廣範한 內容들이 재미 있고 알차게 엮어진 책이다.

이렇게 曙宇先生이 남기신 業績은 알차고 至大하다. 先生은 同學과 後進들을 위하여 殊

玉같은 많은 著書와 譯書와 論文을 남겨셨고, 또 京鄉뿐만 아니라, 全國 各地의 大學敎壇에 서있는 훌륭한 弟子들을 많이 기르셨다. 이제 先生께서 平生을 하루같이 서계셨던 情든 敎壇을 물려서신다니 섭섭하고도 哀惜한 마음 금할 길없다. 그러나 多幸한 일은 現在도 先生의 健康狀態는 매우 좋으시다. 앞으로 先生께서는 더욱 더 思索을 연마하셔서 獨自的인 先生의 哲學의 탐을 새워주시기를 期待한다.

끝으로 曙宇先生께서는 길이 길이 享壽하셔서 보다 더 많은 業績을 남겨서 弟子와 後進들이 그 두터운 後光을 담복 받아 자라기를 祈願해 마지 않는다. 이상의 글은 先生의 人品과 哲學에 관해 총망한 중에 그 一部만을 간결하게 素描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素描중에서도 그 어떤 誤謬가 있거나 先生의 참된 모습에 違背되는 내용이 있었다면, 그것은 全的으로 筆者에게 責任이 있음을 밝혀 둔다. (安相鎭)